

## 도시민 귀농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최돈우\* · 김동춘\* · 이항아\* · 임청룡\*\*

\*경상북도농업기술원 · \*\*농어촌연구원

## A Study on Determinants Factors of Urban-to-rural Migrants

Choi, Don-Woo\* · Kim, Dong-Choon\* · Lee, Hang-Ah\* · Lim, Cheong-Ryong\*\*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er, Gyongsangbuk-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Associate Researcher, Rural Reserch Institut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ffecting factors to consider and make decision on the urban-to-rural migrants using survey data. In the consideration model of urban-to-rural migrants, it was found that the more interest in "urban-to-rural migrants concern" was, the higher probability to consider about urban-to-rural migrants. The lower the age and income level, the higher probability to consider about the urban-to-rural migrants. In the decision making model of urban-to-rural migrants, the more interest in "urban-to-rural migrants concern" was, the higher probability to decision making of urban-to-rural migrants. The higher of stable pension income and the lower of the expected living cost, the higher probability of decision on urban-to-rural migrant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 education to increase "interests and information about rural areas", and A number of safeguards are needed to ensure stable income after urban-to-rural migrants to increase the population of the urban-to-rural migrants.

**Key words** : heckman's sample selection model, factor analysis, urban-to-rural migrants, determinant factors

### 1. 서 론

국가통계포털(kosis.kr) 공표자료를 활용한 계산에 따르면 전국 합계출산율은 1993년 1.654에서 2017년 1.052로 25년간 36.4%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98년의 6.6%에서 2018년 14.3%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50년에는 39.8%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농가인구는 1998년에서 2018년 사이 47.4% 감소하였으며, 고령화율은 동기간 19.6%에서 44.7%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농촌은 인구와 인구구조 등 측면에서 과소화심화, 지방소멸 등 다양한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별로 경기도와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oh et al., 2013).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과소화, 농업소득의 감소 그리고 시장개방 등 국내외의 어려

움에 맞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Kang, 2014).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의식변화를 보면, 2016년 조사결과에서 도시민의 70% 정도가 농업·농촌에 보통 이상의 관심을 가졌으며, 농촌의 긍정적 이미지는 자연 환경,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이라는 도시민의 응답이 79.3%, 귀농·귀촌의 의향이 있다가 41.3%로 나타났다(Kim and Park, 2016).

귀농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려는 목적으로 외부 도시지역으로부터 농촌지역에 신규 전입하는 인구이동을 의미하며, 귀촌은 귀농을 포함하여 도시지역으로부터 농촌지역에 신규 전입하는 인구이동을 의미한다(Kim, 2009). 도시민의 귀농·귀촌은 농업과 농촌 그리고 생태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인식되며, 농촌사회에 활력을 주고 있다(Kwon, 2014; Lee, 2015).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 전체적인 만족도 제고를 통한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 제고(Kim and Jang, 2017), 정주환경에 대한 일반마을과 전원주거단지의 귀농·귀촌인 차이 반영(Cho and Cho, 2013), 및 주

Corresponding author : Lim, Cheong-Ryong

Tel : +82-31-400-1769

E-mail : lql8287@naver.com

거안정을 위한 농촌 빈집의 활용을 연계방안 모색(Lee and Ji, 2013), 귀농·귀촌인의 사회경제적 역할(Park et al., 2015), 귀농·귀촌인에 대한 농촌주민의 태도(Park, 2016)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의 효과 제고를 위해 청장년 귀농·귀촌자 지원 정책 내실화,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거 정책 개발,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내실화 제안(Park and Choi, 2014), 귀농·귀촌 성공을 위한 단계별 정책 시행(Park et al., 2018), 귀농·귀촌정책 진단 및 성과 평가 연구를 통해 현행 귀농·귀촌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Park et al., 2018), 귀농·귀촌 시기별 귀농·귀촌 과정 및 경제·지역사회활동 실태 변화 연구(Ma et al., 2015) 등이 시행되었다. 이외에도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및 기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Lee & Jeon, 2014; Park & Nam, 2015; Lee and Park, 2012; Lee, 2015; Kim,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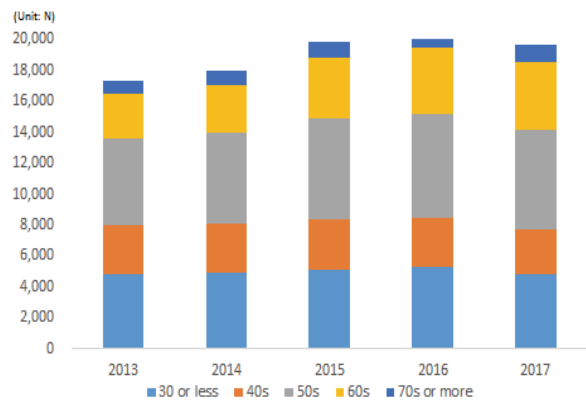
선행연구들은 주로 귀농·귀촌의 인식, 정주여건, 정책, 사회적 역할, 만족도 등 측면의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귀농·귀촌을 동시에 고려하는 측면에 보다 강하였다. 귀농과 귀촌은 생활 또는 생산 공간에 있어서 농촌이라는 공간적 범위 안에 있지만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해결책 도출을 위해서 귀농과 귀촌을 구분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귀농인구의 증가를 위해 귀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굴이외에 귀농의사가 있는 도시민들이 귀농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잠재적 귀농인구 발굴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귀농현황

### 1. 귀농변화 현황

귀농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귀농인구는 2013년 17,318명에서 2017년 19,630명으로 5년 사이 13.4% 증가하였다. 2017년 귀농인구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50대가 전체의 3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0대가 22.5%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시도별 귀농 전 거주 지역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 거주 인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귀농 전 거주지역이 경기도인 인구는 4,226명으로 전체 귀농인구의 2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특별시는 3,095명으로 전체 귀농인구의 15.8%로 나타났(Table 1).



Source: <http://kosis.kr>

Figure 1. Urban-to-Rural Migrants Trend by Age Group

Table 1. Area Distribution of Before Urban-to-Rural Migrants (Unit: N)

Region	2013	2014	2015	2016	2017
Seoul	3,324	3,091	3,425	3,433	3,095
Busan	1,259	1,299	1,497	1,476	1,402
Daegu	1,207	1,409	1,483	1,495	1,435
Incheon	948	984	1,167	1,163	1,025
Gwangju	937	1,079	1,094	1,160	1,103
Daejeon	736	714	790	785	763
Ulsan	352	411	490	522	573
Sejong	4	9	16	60	63
Gyeonggi	3,797	3,929	4,375	4,577	4,226
Gangwon	481	366	498	509	475
Chungbuk	367	410	458	513	459
Chungnam	377	459	507	514	467
Jeonbuk	821	886	870	1,011	1,043
Jeonnam	541	622	556	664	646
Kyungbuk	867	852	1,020	1,008	1,122
Kyungnam	1,107	1,219	1,372	1,399	1,515
Jeju	193	237	242	270	218
Total	17,318	17,976	19,860	20,559	19,630

Source: <http://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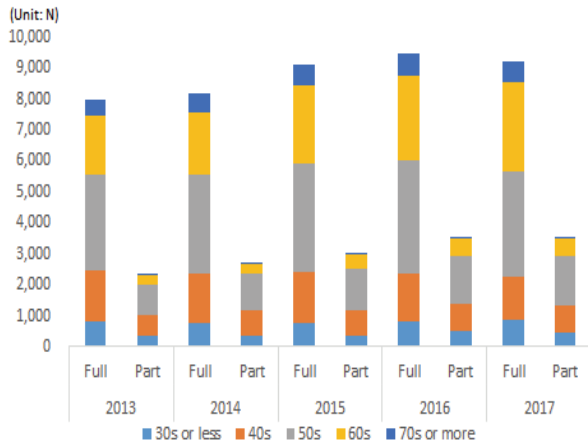
시도별 귀농 지역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라남도, 경상남도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귀농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경상북도 지역으로 귀농한 인구가 3,469명으로 전체의 17.6%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라남도는 14.8%, 경상남도는 13.8%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Area Distribution of After Urban-to-Rural Migrants (Unit: N)

Region	2013	2014	2015	2016	2017
Busan	39	49	63	48	61
Daegu	103	128	137	182	200
Incheon	111	137	159	189	185
Ulsan	113	155	132	145	140
Sejong	122	103	101	124	101
Gyeonggi	1,458	1,429	1,760	2,317	1,943
Gangwon	1,374	1,258	1,582	1,625	1,640
Chungbuk	1,306	1,422	1,514	1,658	1,466
Chungnam	1,933	1,928	2,206	2,253	2,111
Jeonbuk	1,994	2,044	2,039	2,024	2,130
Jeonnam	2,791	2,882	3,071	2,999	2,909
Kyungbuk	3,267	3,560	3,683	3,568	3,469
Kyungnam	2,259	2,357	2,757	2,657	2,703
Jeju	448	524	656	770	572
Total	17,318	17,976	19,860	20,559	19,630

Source: <http://kosis.kr>

귀농현황을 종합해 보면, 귀농인 가운데서 50대와 60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존 거주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이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지역의 귀농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도시지역 거주자 중 퇴직이나 퇴직을 앞둔 도시민들이 대표적인 농업생산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Source: <http://kosis.kr>

Figure 2. Urban-to-Rural Migrants Population Change by Management Type

## 2. 귀농인구 농업경영 현황

경영유형별 귀농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귀농인구 전업농이 겸업농의 2.9배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겸업농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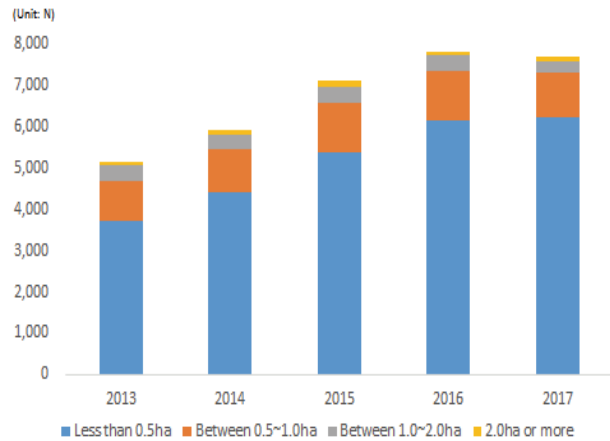
귀농 가구별 재배규모를 살펴보면 “0.5ha 미만” 농가가 가장 많았으며, 2013년 “0.5ha 미만” 가구비율이 전체 귀농가구의 72.1% 였지만 2017년에는 80.9%로 증가하여 귀농가구의 경영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것을 알 수 있다(Figure 3).

귀농농가 가구단위 품목별 평균 재배면적 추이에 대한 주식형 그림을 살펴보면, 귀농농가 평균재배면적은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세부 품목별로 논벼, 두류, 화훼, 과수 및 기타 재배농가는 감소하였으며, 맥류잡곡, 서류, 채소 및 특용작물에 대한 재배농가는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전체 귀농가구 중 논벼 재배농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과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Figure 4).

## III. 분석방법 및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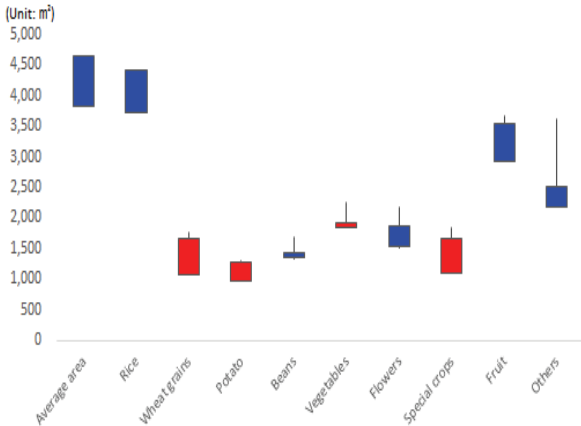
### 1.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귀농결정은 귀농에 대한 고려 여부와 귀농결정 여부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귀농결정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게 될 경우 분석에 활용된 자료가 무작위로 추출된 것이 아니라 귀농에 대한 고려



Source: <http://kosis.kr>

Figure 3. Distribution of farming scale of Urban-to-Rural Migrants



Source: <http://kosis.kr>

Figure 4. Cultivation area of cultivated items

를 하지 않는 대상자들이 배제됨으로써 표본선택에 의한 편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의 값이 여러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Heckman의 표본선택 모형을 활용하고자 하며, 이 모형에서는 귀농에 대한 고려여부와 귀농결정 요인 결정 요인을 2단계로 분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Heckman의 표본선택 모형을 다음과 같이 식 1과 식 2와 같이 2단계로 분리하여 설정할 수 있다. 식 1에서  $t_i$ 는 귀농에 대한 고려여부에 대한 관측변수이고,  $s_i$ 는 귀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벡터이며,  $v_i$ 는 오차항,  $\delta$ 는 추정해야 할 모수 벡터이다. 식 2에서  $f_i$ 는 귀농결정에 대한 관측변수이고,  $x_i$ 는 귀농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벡터이며,  $\epsilon_i$ 는 오차항,  $\beta$ 는 추정해야 할 모수 벡터이며,  $t_i^*$ 와  $f_i^*$ 는 귀농에 대한 고려여부와 귀농결정 여부에 대한 잠재변수이다.

$$t_i^* = s_i' \delta + v_i, \quad t_i = \begin{cases} 1 & \text{if } t_i^* > 0 \\ 0 & \text{if } t_i^* \leq 0 \end{cases} \quad (1)$$

$$f_i^* = x_i' \beta + \epsilon_i, \quad \text{if } t_i = 1 \quad (2)$$

식 1과 식 2의 오차항  $v_i$ 와  $\epsilon_i$ 는 다음과 같은 2변량 정규분포  $\begin{pmatrix} v_i \\ \epsilon_i \end{pmatrix} \sim N_2\left(\begin{bmatrix} 0 \\ 0 \end{bmatrix}, \begin{bmatrix} 1 & \rho\sigma \\ \rho\sigma & \sigma^2 \end{bmatrix}\right)$ 를 따르며,  $v_i$ 와  $\epsilon_i$ 의 분산은 각각 1과  $\sigma^2$ 이고 상관관계는  $\rho$ 이다. 최대우도법을 활용한 로그우도함수는 다음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Green, 2012).

$$l = \sum_{i \in (t_i=0)} \ln[1 - \Phi(s_i' \delta)] + \sum_{i \in (t_i=1)} \left\{ \ln \phi\left(\frac{f_i - x_i' \beta}{\sigma}\right) - \ln \sigma + \ln \Phi\left(\frac{s_i' \delta + \rho \frac{f_i - x_i' \beta}{\sigma}}{\sqrt{1 - \rho^2}}\right) \right\} \quad (3)$$

## 2. 자료

이 연구에서는 도시민 귀농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를 위해 귀농 진출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 50대와 60대를 대상으로 2018년 4월 15일부터 4월 25일 사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도시민 조사를 수행하여 총 1,031부의 유효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조사 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귀농 고려 여부”에 있어서 전체 응답자의 48.5%가 귀농에 대해 고려를 하였고, 연령대에 있어서는 “50대”가 53.9%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401~600만원”이 전체의 38.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Table 3. Basic Statistics on Consideration of Urban-to-Rural Migrants

(unit: N, %)

Variables		Frequency	Percentage
Consideration	no	531	51.5
	yes	500	48.5
Age	50s	556	53.9
	60s	475	46.1
Income Level	Less than 2 million won	90	8.7
	Between 2-4 million won	323	31.3
	Between 4-6 million won	393	38.1
	Between 6-8 million won	186	18.0
	Between 8-10 million won	34	3.3
	More than 10 million won	5	0.5
Total		1,031	100.0

귀농에 대한 고려를 했던 응답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귀농 결정 여부”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 500명 중 귀농 결정을 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6.0%인 것으로 타났고, 연령대에 있어서는 “50대”가 57.4%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401~600만원”이 전체의 40.4%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Table 4. Basic Statistics on Making Desition of Urban-to-Rural Migrants

(unit: N, %)

Variables		Frequency	Percentage
Desition	no	170	34.0
	yes	330	66.0
Age	50s	287	57.4
	60s	213	42.6
Income Level	Less than 2 million won	41	8.2
	Between 2-4 million won	170	34.0
	Between 4-6 million won	202	40.4
	Between 6-8 million won	73	14.6
	Between 8-10 million won	9	1.8
	More than 10 million won	5	1.0
Total		500	100.0

#### IV. 분석결과 및 해석

##### 1. 귀농 의사 영향 요인

귀농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의 수준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으며, 귀농 고려 여부에 따른 귀농 의사 결정 영향 변수들에 대한 윌콕슨 검정 결과 “농업농촌 관심”, “안전 먹거리 관심”, “은퇴여가생활”, “배우자 동참의지”, “귀농정보”, “농촌출신 및 농사경험”, “귀농 투자금” 등에서 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귀농 의사 결정 영향 변수들을 귀농결정모형에 활용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한 차원 감소가 필요하며, 요인 분석을 수행함에 주성분요인추출과 베리맥스 직교회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귀농 후 경영성과”와 “귀농 관심도”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귀농 후 경영성과”요인에는 “귀농 투자금”, “귀농 후 수익”, “생활여건”, “농촌출신 및 농사경험”, “배우자 동참의지”, “은퇴여가생활” 등이 포함되었으며, “귀농 관심도”에는 “농업농촌 관심”, “안전 먹거리 관심”, “귀농정보” 등으로 구성되었다 (Table 6).

Table 5. Differences in the Impacts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Variables	Inexperienced		Experienced		Wilcoxon Test
	Means	S.D.	Means	S.D.	Z
Interest i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3.548	0.945	4.186	0.732	11.231***
Interest in Safety food	3.507	1.196	4.162	0.788	8.940***
Retired Leisure Life	3.729	0.874	4.152	0.826	7.960***
Living Conditions	3.701	0.851	3.790	0.860	1.424
Willingness of Spouse to Join	3.770	0.826	3.924	0.923	3.487***
Urban-to-Rural Migrants Information	3.292	0.875	3.836	0.882	9.884***
Rural and Farming Experience	3.659	0.872	3.736	1.012	2.601***
Agricultural Investment	3.625	0.822	3.806	0.799	3.665***
Profitability	3.669	0.840	3.680	0.812	0.063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1% significance level.

Table 6. Factor Analysis of Influential Decision Variables

Variables	Management Performance	Interest in Urban-to-Rural Migrants
Agricultural Investment	0.655	0.286
Profitability	0.642	0.092
Living Conditions	0.570	0.122
Rural and Farming Experience	0.550	0.120
Willingness of Spouse to Join	0.309	0.220
Retired Leisure Life	0.295	0.291
Interest i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0.135	0.757
Interest in Safety food	0.100	0.710
Urban-to-Rural Migrants Information	0.400	0.586
Eigenvalue	2.702	0.809

KMO 0.795

Cronbach's  $\alpha$ : 0.781

2. 귀농 의사 결정 영향 간접요인

귀농 결정에 대한 Heckman의 표본선택 모형 분석결과 귀농고려모형에서는 “귀농 관심도”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연령대”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Table 7. Heckman’s sample selection model for Making Desition of Urban-to-Rural Migrants

	Variables	Parameters	S.E.	T
Consideration Model	Constant	0.90793***	0.1272	7.140
	Management Performance	-0.01593	0.0262	-0.610
	Interest in Urban-to-Rural Migrants	0.18452***	0.0517	3.570
	Agricultural Area	0.01467	0.0368	0.400
	(Agricultural Area) <sup>2</sup>	0.00101	0.0026	0.390
	Purchase of Farmland	0.01053*	0.0060	1.750
	(Purchase of Farmland) <sup>2</sup>	-0.00026**	0.0001	-2.560
	Daily Working Hours	-0.01169	0.0129	-0.910
	Initial Investment	-0.00441*	0.0024	-1.850
	Estimated Pension Income	0.00089***	0.0003	3.420
	Living Expenses	-0.00213***	0.0003	-7.000
	$\sigma$	0.42580***	0.0196	21.680
Desition Model	Constant	0.25187	0.2305	1.090
	Management Performance	-0.03570	0.0537	-0.660
	Interest in Urban-to-Rural Migrants	0.71483***	0.0617	11.590
	Age	-0.22833**	0.0938	-2.430
	Household Members Numbers	0.07126	0.0522	1.370
	Income Level	-0.10241*	0.0541	-1.890
	$\rho$	0.25240	0.1848	1.370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1% significance level.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5% significance level.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10% significance level.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귀농 관심도”에 대한 추정계수 부호가 양(+)의 값을 가지므로 “귀농 관심도” 수준이 증가할수록 귀농 고려 확률이 증가하고, “연령대”에 대한 추정계수가 음(-)의 값을 가지므로 “50대”가 귀농관심도가 더 높으며, “소득수준”에 대한 추정계수 역시 음(-)의 값을 가지므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귀농고려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귀농결정모형에서는 “귀농 관심도”, “예상 연금소득”, “귀농 후 생활비”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농지구입금액)<sup>2</sup>”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농지구입금액”과 “초기 투자금”이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귀농결정모형에 있어서 “귀농 관심도”에 대한 추정계수 부호가 양(+)의 값을 가지므로 “귀농 관심도” 수준이 증가할수록 귀농 고려 확률이 증가하고, “농지구입금액”에 대한 추정계수가 양(+)으로 “(농지구입금액)<sup>2</sup>”에 대한 추정계수는 음(-)로 나타나 예상 농지구입금액이 증가할수록 귀농결정 확률이 증가하지만 농지구입금액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귀농결정 확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귀농에서 농지의 중요성은 Woo and Lee(2015) 연구결과와 유사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귀농에서 “농지구입금액” 규모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부분에서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기투자금”에 대한 추정계수는 음(-)으로 나타나 귀농초기 투자금이 적을수록 귀농결정 확률이 증가하고, “예상 연금소득”에 대한 추정계수는 양(+)으로 나타나 연금소득이 높을수록 귀농결정 확률이 증가하며, “귀농 후 생활비”에 대한 추정계수는 양(-)으로 나타나 귀농 후 생활비가 적을수록 귀농결정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7). 이러한 분석결과는 월소득이 중요하게 나타난 Kim and Chung(2018)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월소득 관련하여 “초기투자금”, “예상 연금소득”, “귀농 후 생활비”등으로 구분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한 부분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귀농인구의 증가를 위해 귀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굴이외에 귀농의사가 있는 도시민들이 귀농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잠재적 귀농인구 발굴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고려 여부에 따라 “농업농촌 관심”, “안전 먹거리 관심”, “은퇴 여가생활”, “배우자 동참의지”, “귀농정보”, “농촌출신 및 농사경험”, “귀농 투자금” 등 변수들의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둘째, 귀농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귀농 후 경영성과”와 “귀농 관심도”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셋째, 귀농고려모형에 있어서 “귀농 관심도” 수준이 증가할수록 귀농 고려 확률이 증가하고, “50대”가 귀농관심도가 더 높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귀농고려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귀농결정모형에 있어서 “농지구입금액”이 증가할수록 귀농결정 확률이 증가하지만 농지구입금액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귀농결정 확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초기 투자금”이 적을수록 귀농결정 확률이 증가하고, “예상 연금소득”이 높을수록 귀농결정 확률이 증가하며, “귀농 후 생활비”가 적을수록 귀농결정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로부터 귀농고려와 귀농결정은 여러 변수에 거쳐서 차이가 존재하며, 전반적으로 귀농관심도가 귀농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귀농 활성화를 위해 귀농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잠재 귀농 대상 목표 설정에 있어서 50대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귀농인 유입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귀농인 농지 확보를 위한 적정지원 규모를 설정하여 농지확보 자금을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귀농인 초기 투자금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귀농효과 향상이 필요하다. 다섯째, 귀농 후 안정적인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농업경영 안정화 정책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 도모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귀농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샘플추출에 있어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므로 분석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보다 일반화된 귀농결정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는 농림식품기술평가원 연구과제(과제번호: 319004-01-HD03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References

1. Cho Y J, Cho E J, 2013, An Analysis on the Actual State of the Settlement and the Community of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 Focused in Chungnam Province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9(4): 191-202.
2. Green, W. H. 2012. Econometric Analysis 7th edition. Pearson Educatin Ltd.
3. Kang, S. K., 2014, Rural Tourism(Second edition), Daewangsa, Seoul.
4. Kim, D. W., Park, H. J., 2016, Public Opinion Survey o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KREI.
5. Kim J G, Jang D H, 2017, The Rural Experience and Customer Satisfaction of Urban Residents on the Recognition of Return to Farm and Rural Area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3(3): 97-105.
6. Kim, J. S., 2009, What can local governments do to help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16(3): 533-556.
7. Kim K H, Chung, S H, 2018, Determinants of Rural Migrants'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tudies, 19(1): 5-26.
8. Kim, W. D., 2015, Urban-to-Farm Migration of the Baby-boom Generation: Reality beyond Nostalgia and Ways for Revitalization of Urban-to-Farm Migration,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25(2): 93-144.
9. Kwon, D. W., 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Farm-returning and Rural-returning Consulting on the Rural Migration Intention for Urban workers,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10. Lee, C. W. and Jeon, J. H., 2014, Regional Characteristics of Urban to rural migration in Gyeongbuk Province,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49(1): 73-88.
11. Lee C W, Ji N S, 2013,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Empty House for Rural Activatio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9(3): 169-182.
12. Lee, H. G., 2015, The Impact of Urban Residents'Rural Tourism Experience on Their Expectation about Return-to-Rural Life, Tourism

- Research 40(3):103-123.
13. Lee, M. S. and Park, D. B., 2012, The Typology of Urban - Rural Migration and Its Implication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19(4): 1137-1170.
  14. Ma S J, Park D S, Park S H, Choi Y W, Nam K C, Nam S H, Choi Y J, 2015, A Trend Analysis of Urban-rural Migrants Background, Economic Activity, and Community Participation,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7(2): 1-21.
  15. Park D S, Ma S J, Hwang J I, Kim G I, 2018, The Report on the Case Study of the Urban-to-Rural Migrant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6. Park, D .S. and Nam, S. H., 2015, Urban-to-Rural Migrants' Community Participation and the Related Variables,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25(1): 41-87.
  17. Park D S, Ma S J, Hwang J I, Park J Y, 2015, Socio-economic role of Urban-to-Rural Migrant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8. Park D S, 2016, Analysis on the Factors Influencing Rural Residents' Attitude toward Urban-to-Rural Migrants,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26(1): 7-35.
  19. Park D S, Ma S J, Hwang J I, Kim G I, 2018, Diagnosis and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on Policy of Urban-to-Rural Migrant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 Park S H, Choi Y W, 2014, A Study on the Factors of Urban-to-Rural Migrants to Impact Rural Society and Economy.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1. Roh J S, Jung J H, Jeon J Y, 2013, Returning Farmers and the Aging of Farm Households: Prospects of Changes in Rural Population by Their Influx,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9(4): 203-212.
  22. Woo, S H, Lee S G, 2015, A Study on the Selecting Factors of Areas for Returning to Farm and Rural: Focusing on 6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sangbuk-do, Journal of Korean Local Government, 17(3): 75-94.
- 
- Received 23 July 2019
  - First Revised 16 August 2019
  - Finally Revised 18 August 2019
  - Accepted 22 August 2019